

국 어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21년		3(↓1)	10(↑1)	4(↓1)	3(↑1)
2020년		4	9	5	2

2021 지방직 9급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문법/규범은 1문제가 줄어들었으며, 비문학/독해는 1문제가 늘어나고 문학은 1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독해의 비중은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휘/한자는 1문제가 늘어나 총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법/규범은 기출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독해 문제의 경우 난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지문의 개수가 많 다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의 압박으로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학은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합격점은 80점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 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 문학은 현대시/현대소설/고전시가/고전소설 등 유형별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작품 분 석을 하면서 대비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 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담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5.
기미진 올림

문 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 ② 결혼식이 몇 월 몇 일이야?
- ③ 굳은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 ④ 그는 주말이면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준어 +주의해야 할 문법 표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웬’과 ‘웬’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왜인지’의 준말인 ‘웬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웬’을 사용합니다. ‘웬말’은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② [X] ‘며칠’은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며칠’이 ‘몇 + 일’로 분석되는 구조라면, ‘몇 년’, ‘몇 월’과 발음을 비교해 볼 때 [며칠]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며칠’로 적어야 합니다.
③ [O]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겼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박이다’를 씁니다.
④ [O]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10항에 따라 ‘으레’로 적습니다. ‘으레’와 함께 ‘휴게실’, ‘계재’, ‘게시판’, ‘케케묵다’, ‘겨레’ 등은 ‘ㄹ’이 아니라 ‘ㄴ’을 사용하는 단어로 외워야 합니다.

문 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써 부족함이 없다.
- ②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③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 ④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서 세 번째가 됩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문법 표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로써’를 써야 옳습니다.
- ② [X]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가 어울리므로 ‘로써’가 맞습니다.
- ③ [O]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는 ‘로써’를 사용합니다.
- ④ [X]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는 ‘로써’를 사용합니다.

문 3.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나절: 하루 낮의 반
- ②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③ 그그저께: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 ④ 해거리: 한 해를 거른 간격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간, 날씨, 계절과 관련된 어휘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X] ‘반나절’은 ‘한나절의 반’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나절’은 (1) ‘하룻날의 반(半)’의 의미와 (2) ‘하룻날 전체’의 뜻으로 쓰입니다. (1)의 의미로 쓰인 경우 ‘반나절’은 ‘하룻날의 반의 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그러나 (2)의 뜻으로 본다면 ‘반나절’은 ‘하룻날 전체의 반’이 되므로 옳은 뜻풀이가 됩니다. 참고로 ‘반나절’에는 ‘하룻날의 반(半)’의 의미도 있습니다.

문 4. 밑줄 친 부분과 바뀌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몹시 가난한 형편에 누구를 돕겠느냐? - 가랑이가 찢어질
- ②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 - 호흡을 맞춰
- ③ 그는 상대방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 - 코웃음을 쳤다
- ④ 주인의 말에 넘어가 실제보다 비싸게 이 물건을 샀다. - 바가지를 쓰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관용구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가랑이가 찢어지다’는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몹시 가난한’과 바뀌 쓸 수 있습니다.
② [X] ‘호흡을 맞추다’는 ‘일을 할 때 서로의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하여 나간다.’라는 뜻으로 ‘연결해 주어’와 바뀌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하다.’의 뜻인 ‘다리를 놓다’와 바뀌 쓸 수 있습니다.
③ [O] ‘코웃음을 치다’는 ‘남을 깔보고 비웃다.’라는 뜻이므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④ [O] ‘바가지를 쓰다’는 ‘요금이나 물건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비싸게’와 바뀌 쓸 수 있습니다.

문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는 오월 단옷날이렸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친증절을 모를소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땡아 봉황 새긴 비녀를 단정히 매었구나. …(중략)… 장립 속으로 들어가니 ㉡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피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 타려 할 때, 좋은 비단 초록 장옷, 남색 명주 홀치마 훨훨 벗어 걸어 두고, 자주색 비단 꽃신을 썩썩 벗어 던져두고, 흰 비단 새 속옷 턱밑에 훨씬 추켜올리고, 삼 겹질 그넛줄을 섬섬옥수 던지시 들어 두 손에 갈라 잡고,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 구른다. …(중략)… ㉢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 가니 머리 위의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갈 제 살펴보니 녹음 속의 붉은 치맛자락 바람결에 내비치니, 높고 넓은 흰 구름 사이에 번갯불이 쏘는 듯 잠깐 사이에 앞뒤가 바뀌는구나. …(중략)… 무수히 진퇴하며 한참 노닐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 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뜨리는 듯. ㉣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 ①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② ㉡: 비유법을 사용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③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소설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의 ‘~천중절을 모를쏘냐.’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② [O] ㉡의 ‘황금 같은 꾀꼬리’에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라는 표현에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의 ‘떨떨’, ‘흔들흔들’과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음성상징어: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엇금엇금’ 따위가 있다.

④ [X] ㉣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네 타는 춘향이의 외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였습니다.

문 6.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B: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A: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싫어요.

B: 글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A: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 ①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②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

③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한다.

④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X] 고객의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 A는 승낙했다는 답변으로, B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으로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② [X] A는 고객의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라며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③ [O] B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를 통해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

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A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와 같이 비(非)언어적 표현이 아닌 반(半)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승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비(非)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

반(半)언어적 표현: 언어와 함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의 강약, 높낮이, 가락과 같은 것.

문 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수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무수 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로.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스물두 살의 남성이고 열여덟 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꼬려대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싸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에서 —

①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오누이’일 뿐이다.

③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수 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④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는 부모의 재혼으로 오누이가 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체로 그린 단편소설입니다.

① [O]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를 통해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무수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무수 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로.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를 통해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오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를 통해 ‘나’가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수 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우리를 비꼬려대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와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를 통해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그럼 실제로 연습해 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답갈지 않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①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 ②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 ③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 ④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의도·견해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글쓴이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응을' 찾으려 합니다.

- ① [X]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대응입니다.
- ② [X]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응입니다.
- ③ [O]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응으로 적절합니다.
- ④ [X]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대응입니다.

문 9.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집안 내력을 알고 보른 동기간이나 진배없고, 성환이도 이자는 대학생이 됐으니께 상의도 오빠꼴이 그렇게 알아놔라.” 하고 장씨 아저씨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의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거부감을 느꼈다.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꼈기보다 제복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학교규칙이나 사회의 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남녀였으니까. 호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의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 (가) ,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건데 아프기는 와 아프는고, 옛말 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 박경리, 『토지』에서 —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② 망운지정(望雲之情)
-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④ 백아절현(伯牙絕絃)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가)의 바로 뒤에서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건데'를 통해 할매가 내내 손주를 생각하고 염려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寤寐不忘: 잠 깰 오, 잘 깨, 아날 불, 잊을 망)'이 적절합니다.
- ② [X] 망운지정(望雲之情: 바랄 망, 구름 운, 갈 지, 뜻 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 ③ [X] 염화미소(拈華微笑: 집을 염, 빛날 화, 작을 미, 웃음 소)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④ [X] 백아절현(伯牙絕絃: 만 백, 어금니 아, 끊을 절, 줄 현)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문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나) 벌레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
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돌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 ① (가)는 '산천'과 '인결'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쌍룡'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가)는 길재의 <오백년 도읍지를>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을 노래한 시조이며, (나)는 조지훈의 <봉황수>로 망국의 비애를 노래한 시입니다.

- ① [O] (가)는 자연물의 영원성을 '산천'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인결'로 대비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O] (나)의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는 중국 황제를 의미하는 '쌍룡' 대신에 '봉황'으로 조선의 왕을 나타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쌍룡'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O] (가)에서는 초장에서 오백 년 도읍지의 모습(선경)이 나타난 후에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경(후정)이 나타나며, (나)에서는 황폐해진 궁궐의 정경(선경)이 제시된 뒤 망해 버린 옛 왕조에 대한 화자의 심경(후정)이 나타납니다.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④ [X] (가)는 '오백년/도읍지를/필마로/돌아드니'와 같이 3·4조, 4음보의 형태로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는 율격과 음보에 구애받지 않고 시상을 전개한 자유시입니다.

문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 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같은 말들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 ①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한다.
- ②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1문단의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를 통해 미국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문단의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를 통해 일본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1문단의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를 통해 미국의 어머니가 사물의 속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문단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을 통해 일본의 어머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을 훈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2문단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를 통해 일본의 어머니가 행동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1문단의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를 통해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문단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를 통해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2.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지능(AI)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상에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GPS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 찾아가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다.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멸절된 어른도 길을 잃는다.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 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하게 해 준다면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 ① 인간의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 ②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③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 ④ 인공지능(AI)은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② [O] 제시문은 1문단에서 '인공지능(AI)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로 시작하여, 2문단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마지막 문단에서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가 적절합니다.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나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열 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 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 ①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 ③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1문단의 ‘~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1문단의 ‘~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X] 2문단의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 망상에 불과하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2문단의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을 통해 영어는 하나의 예시일 뿐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맞볼 수 있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다.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헐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헐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악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든다. 이따금 일과만파로 사회가 요동을 치기도 한다.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 ②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 ④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1문단의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맞볼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② [O] 2문단의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X] 1문단의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3문단의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① [O] 문장 처음의 부사 '현재'를 볼 때,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O] '누구나 행복한 ○○사'는 시창이 실현하기 위한 목표이므로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지양'이 아닌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③ [O]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준비 기간이 짧았던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와 같이 고쳐 써야 적절합니다.
- ④ [X] '납부(納付/納附)'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제 기관에 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수납(收納)'이란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이라는 뜻으로 (라)의 경우 공과금을 금융 기관에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18.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서연: 여보게, 동연이.

동연: 왜?

서연: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걸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네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동연: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서연: 의심이 없다니……?

동연: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서연: 음…….

동연: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 있는 탕화를 가리키며) 자네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 십일면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열한 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서연: 자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에서 —

- ①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 ②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 ③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 ④ 동연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나리오, 희곡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은 불상의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형태를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을 통해 형태와 내용 그 어느 쪽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쪽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을 제시해 주는 작품입니다.

- ① [O] 동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제작하려는 입장이고, 서연은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로 보아 불상 제작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서연의 '자네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X] 서연의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을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동연의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와 서연의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와 같은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문 19.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이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바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 깊다.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도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므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 .

- ①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③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④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락의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④ [O] (가) 앞에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에는 그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복사열로 상체와 위쪽 공기가 데워지고, 대류 현상은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므로 바닥 바로 위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는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가 적절합니다.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맨 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에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호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캤(Château d'Yquem)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3문단의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호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2문단의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1문단의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4문단의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①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 ②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 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 ③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 ④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